

0927(화) 학개 1-2장 회복의 우선순위

꿈에 그리던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을 때(대하36:22-23),
유대인들은 현실과 신앙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.
<어렵게 마련한 경제/사회적 기반들과 함께 남을 것인가,
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국으로 귀환할 것인가? >

회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귀향한 이들은
곧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(스2:64, 느7:66).
조상들의 가옥과 토지는 이미 남의 것이 되어 있었고,
본토 주민/이방인과의 갈등, 흉작, 사회문제들로 인해
20년 가까이 피폐한 삶이 이어졌습니다.

성전건축을 시작했지만 곧 중단되었으며(스4:1-6 참고),
경제적 궁핍과 현안들로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(1:2).
학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책망합니다(1:4,7, 2:18-19).
황폐함의 근원을 살피라고 명합니다(1:4-11, 2:15-17).

<성전건축>은 단지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아닙니다.
하나님의 임재,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
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.
황폐한 개인과 공동체의 영/혼/몸을 재건하며,
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하는 것입니다.

약속하신 회복은 <하나님의 임재>로부터 시작됩니다.
하나님이 공동체와 함께하시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(2:4-5).
하나님은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을 보지 않으시고(2:3),
그에 담긴 의미와 결단을 귀하게 보십니다(1:12-13).

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
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약속하십니다(2:4-9, 21-23).

나는 회복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있습니까?

- ❶ 하나님과의 관계를 <형편이 나아진 이후>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까?
- ❷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됨을 깨닫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학개 1-2장

업로드 자료 ❶ <BIBLE PROJECT 성경개관> [\(1\) 학개 개요 Haggai - YouTube](#)